

	<b>보도자료</b>		· 미래창조 금융
	<b>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</b>		· 따뜻한 금융 · 특정한 금융
<b>작성부서</b>	(금융위원회) 금융정책과 / (기획재정부) 출자관리과 / (한국주택금융공사) 기획조정실		
<b>책임자</b>	권대영 금융정책과장 (02-2156-9710)	<b>담당자</b>	류성재 사무관 (02-2156-9718)
	오광만 출자관리과장 (044-215-5170)		장원석 사무관 (02-2156-9714)
	정재선 기획조정실장 (051-663-8481)		김교중 사무관 (044-215-5172)
<b>배포일</b>	'15.12.28일(월)	<b>배포부서</b>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4대

**제 목 : 정부,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,500억원 현물출자**

"원활한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서민·중산층 내집마련 지원과  
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."

-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('15.12.22일)와 대통령 재가('15.12.23일) 등을 거쳐 한국주택금융공사(이하, '공사)에 대해 1,500억원의 현물출자 실행('15.12.24일)
  - '15년말 공사 납입자본금은 1.68조원→1.83조원으로 증가하고, 지급보증 배수(법상 한도 50배)는 42.0배→39.2배로 낮아지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
  - 공사에 대한 정부 지분율은 61.6% → 64.8%\*(+3.2%)로 증가
    - \* 정부 일반회계 1.08조원(59.0%), 주택도시기금 0.11조원(5.8%), 한은 0.64조원(35.2%)
    - \*\* 금년 총 4,000억원 출자: 한은 2,000억(6.5일), 추경 500억(8.31일), 현물출자 1,500억(12.24일)
- 현재 공사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2조원 → 5조원으로 상향하는 공사법 개정안(이운룡 의원, '15.3.4일)이 국회 정무위에서 심의중
  - 공사 납입자본금(1.83조원)이 수권자본금 한도(2조원)에 근접하므로 동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,
    - 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<http://www.fsc.go.kr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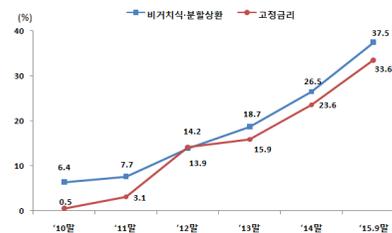
넓게 들겠습니다  
바르게 알려겠습니다

**붙임**

**'15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요 실적**

- 주택금융공사(사장 김재찬)는 '04년 주택금융의 장기적·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복지 증진·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
  - 보금자리론, 적격대출 공급, 주택 관련 사업자 및 개인에 대한 보증 지원, 주택연금 등의 업무 수행
- '15.3월, 주택금융공사는 **안심전환대출**을 출시·공급(31.7조원, 32.7만건)하여 **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**에 크게 기여
  - \* 기존의 '변동금리 대출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'을 '고정금리이면서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'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
- ① **안심전환대출** 공급으로 '16년말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(30%)를 조기에 **초과 달성**하여,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 조정\*(15.8월)
  - \* 분할상환(당초→수정, %) : ('15) 25→35 ('16) 30→40 ('17) 40→45  
고정금리 " : 25→35 30→37.5 40
- ② 빛은 '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'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을 형성하고 소비자·금융회사들의 인식 전환에도 기여
  -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로 향후 금리 상승시 가계의 이자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**가계소비 여력 유지** → 거시경제 안정
- ③ 국제신평사, 주요 외신에서도 **안심전환대출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**

<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실적 >



<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평가 >

- ✓ 무디스, '한국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출 대환계획은 신용도에 긍정적'
- ✓ 파이낸셜 타임즈, '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고정금리, 분할상환대출로의 가계대출 구조 전환이 가속화'

□ 지난 10월, 국민의 합리적이고 편리한 주택금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**안심住Money 앱(App)** 출시 \* 12.28일 현재 약 22만건 다운로드

- 同 앱을 통해 주택금융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'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**상환구조**'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·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
- 정부가 지속 추진하고 있는 **고정금리·분할상환 위주의 대출 구조 개선**에 대한 인식을 널리 공유

< 적정 대출 시뮬레이션 >



✓ 연소득 5,000만원일 경우, 적정 대출 규모 시뮬레이션 결과

< 대출 이자 계산기 >



✓ 주담대 2억, 금리 3%, 20년 대출시, 분할상환, 일시상환간 이자부담 비교

□ 또한, 보증자리론 등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, 전세자금보증 등을 통해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

❶ 10년 이상 장기·고정금리·분할상환 방식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**보증자리론** 공급을 '14년에 비해 70% 이상 확대\*' 하고, 서민층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**전세자금보증**을 지원\*\*

\* 보증자리론 공급 : ('14년) 8.5조원 → ('15년 예상) 14.7조원 (+73%)

\*\* 전세자금보증 실적 : ('14년) 17.7조원 → ('15년 예상) 18.5조원 (+5%)

❷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주택 건설 및 매입자금 **대출보증 활성화**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

\* 사업자보증 공급 : ('14년) 1.0조원 → ('15년 예상) 2.0조원 (+100%)

□ **주택연금**\*도 어르신들의 주거·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 안착하는 추세

\* 집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, 연금을 평생 동안 매월 받는 제도(예 : 2.8억 주택, 72세 가입 → 평생 월 96만원 수령)

○ 매년 주택연금 공급은 5천건 정도였으나, 홍보·제도 개선 등으로 '15년에는 이를 크게 **상회**\*할 것으로 예상

\* 주택연금 공급 건수 : ('14년) 5,039건 → ('15년 예상) 6,500건 (+30%)

○ 현재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 → **부부중 1인 60세 이상**으로 완화하는 주금공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며,

-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요건 중 **주택가격 한도(9억원)**를 **폐지**\*하고, **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**하는 한편, 저소득층에 대해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**'우대형 주택연금'**도 도입할 예정

\* 다만 최대 연금지급액은 현 수준 유지하여 주택연금 건전성은 유지

□ 주택금융공사는 '16년에도 국민들의 주택금융 이용에 더욱 기여하고,

○ 리스크 관리 전문가 채용 확대,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주택 금융공사 **전반의 리스크 관리**에도 만전을 다하는 등

-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**'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주택금융 리더'**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

< 주택금융공사 사업별 공급실적 및 '16년 목표치 >

구 분 (조원)	'04~'14년	'15년	'16년			
	누적 실적	실적(A) <sup>1)</sup>	목표(B)	증감액(B-A)	증감률(%)	
유동화 사업	보증자리론 공급액	69.6	14.7	10.0	△4.7	△32.0
	적격대출 공급액	28.9	43.9 (12.2) <sup>2)</sup>	16.0	△27.9 (3.8) <sup>2)</sup>	△63.6 (31.1) <sup>2)</sup>
	유동화증권 발행액	105.8	55.5 (24.7) <sup>2)</sup>	26.0	△29.5 (1.3) <sup>2)</sup>	△53.2 (5.3) <sup>2)</sup>
주택보증 사업	주택보증 공급액	152.4	37.2	35.8	△1.4	△3.8
	개인	144.3	35.2	33.9	△1.3	△3.7
	사업자	8.1	2.0	1.9	△0.1	△5.0
주택연금 사업	주택연금 공급액	29.1	6.6	7.9	1.3	19.7
합 계	385.8	157.9 (95.4) <sup>2)</sup>	95.7	△62.2 (0.3) <sup>2)</sup>	△39.4 (0.3) <sup>2)</sup>	

1) '15년 실적은 연말 추정치

2) 안심전환대출 공급(31.7조원) 및 유동화 실적(30.8조원) 제외 시